

쌀협상 비준동의안 상정 또 연기 ...언론 '경제의 짐' 우려

- 쌀협상 비준안이 농민단체 반발 등으로 9.12일 통일외교통위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자 정부는 국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국제분쟁이나 국가신뢰도 하락을 우려하였다.
- 이에 대해 언론들은 정부의 걱정과 달리 정치권의 움직임을 보면 국회에서 쌀협상 비준안의 이달중 처리는 물건너가는 분위기라며, 경제지를 중심으로 쌀협상 비준안 국회 동의를 표류하면서 경제의 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 한편,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9.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비준 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쌀 협상 결과에 대한 정부의 보완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시켰으며, 한나라당은 쌀협상 비준동의안과 관련해 추곡수매량 동결 등 농민 대책이 마련되면 동의안을 본회의 표결에 붙이는데 응하겠다고 밝혔다.
- 언론들은 정치권의 움직임으로 볼 때 올해 안으로 쌀협상 국회 동의를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기도 하였다.

대법원,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조례 위법판결 파문

- 우리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사용하도록 한 전북도의회 조례에 대해 대법원은 9.9일

'GATT 규정에 위배돼 무효' 라고 판결. 이에 따라 '우리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해 현재 대법원에 무효소송이 제기돼 있는 충북·경기·서울·경남의 조례 역시 무효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 이에 대해 그동안 조례제정 운동을 주도해 온 시민사회 단체와 농민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 당국은 환영하는 분위기였으며 언론은 <문화> <국민> 등이 무효 판결을 수용하고 대안을 찾아야한다는 논조로 보도하였다.

APEC 美 대표 "한-미 포괄적 FTA 체결해야"

- <edaily 9.15> 마이클 미할락 APEC 미국 대표는 9.15일 한국과 미국이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해.
- 미할락 대표는 이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오찬간담회에서 "한국과 미국은 농업뿐 아니라 서비스, 투자 등 다양한 분야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FTA를 체결해야 한다"고 밝혀.

'조류인플루엔자' 대책 시급하다'

또 조류인플루엔자 비상이 걸릴 모양이다. 터키와 루마니아에서 피해 소식이 전해지면서 앞으로 최대 1억5,000만명이 사망하는 인류 대재앙이 될지도 모른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1918년 1차 세계대전 당시 약 5,000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스페인 살인독감 바이러스(H1N1)가

최근 아시아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H5N1)와 거의 일치한다는 미국 연구팀의 보고서가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워싱턴에서는 7일 세계 70개국 대표들이 모여 긴급대책회의를 열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다.

농림부도 러시아·몽골 등에서 남하하는 겨울 철새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14일 전국에 발생예보를 내릴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국내 유행시 방지하면 약 1,500만명이 감염돼 최대 44만명이 사망할 것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내놓고 있다.

지금까지 이 병은 제한적으로 조류에서 사람에게 전염될 뿐 사람끼리의 감염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다. 우리나라는 200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전국 10개 시·군에서 조류인플루엔자로 닭고기와 오리 등 사육농가와 관련업계가 약 1조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 질병이 음식을 통해서도 전염되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단언에도 불구하고, 재산피해를 넘어 인명피해까지 우려할 상황이다.

현재로서 유일한 치료제인 '타미플루' 백신 확보가 관건이다. 현재 국내 비축량은 인구의 1.4% 정도인 70만명분으로 긴급방역에도 모자란다고 걱정이다. 세계 각국이 백신 확보에 혈안이 돼 있는 판국에 우리는 당초 100만명분을 비축에서 오히려 약 30만명분을 삭감했다니 너무 안이한 대응이다. 인류 대재앙 경고 앞에 방심은 금물이다. 철저한 사전 대비책을 서둘러야 한다.

‘중국산 냉동고추’ 변칙수입 차단하라

중국산 냉동고추의 30~50%가 건고추를 얼려만 들고 있는 것이 현지 확인됐다. 농민신문과 농협 고

추전국협의회가 최근 중국의 냉동고추 가공공장을 방문조사했더니 건고추를 섞은 냉동고추 제조가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것도 '무엇이 문제냐'고 반문할 정도로 당연시하고 있다니 충격적이다.

고관세인 건고추를 저관세인 냉동고추로 위장수출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수입가를 저가신고하는 변칙수입까지 가세해 '파죽지세'처럼 국내시장에 밀려오고 있다. 올 들어 8월 말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의 갑절인 3만3,300t이 수입됐고, 현지 고추 생산이 늘면서 수입증가가 예상돼 연말까지 10만t이 넘을 것이라 한다. 이를 25% 수출의 건고추로 환산하면 2만5,000t에 달해 지난해 국내생산량 15만4,962t의 17%나 된다 하니 국산고추의 초토화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큰 문제는 현지 냉동에서부터 통관과 국내 재건조 및 유통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변칙·불법행위가 난무하는데도 속수무책이라는 점이다. 홍고추를 얼린 것을 냉동고추로 간주하면서도 원료고추의 수분함량 기준은 명확히 설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건고추의 변칙수입을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있다. 국내 유명 주산지 로 실려가 해동, 재건조된 중국산 냉동고추는 국산 혼합과 둔갑유통 수법이 갈수록 치밀함과 과감성을 더해가지만 우리의 감시·단속체계는 엉성하기 짝이 없다.

원료고추로 일정 수분함량 이상의 홍고추를 쓰도록 명시하는 등 냉동고추 기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 저가신고와 중량초과 선적 등 관세포탈 행위를 엄단하고 중국산 냉동고추 대량 수요처에 대한 원산지표시 감시도 강화해야 한다. 중국산 냉동고추의 식품 위해성을 검증할 안전성 검사도 소홀히해서는 안된다.

나라 1천만석 적재! 국회비준 저지! 수매제 부활! 광주전남농민연대 투쟁 선포 기자회견문

일시: 2005년 10월 6일 오후 2시

장소: 전남도청앞

나라 1천만석 적재로 국회비준 저지하고 수매제를 쟁취하자!!

- 나라 1천만석 적재를 선포하며 -

농촌의 들녘은 황금빛이지만 농민들 가슴은 까맣게 타들어만 가고있다.

지난해 진행된 쌀협상과 수매제 폐지로 인해 시중 쌀값이 작년대비 30% 가까이 폭락하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떨어지고 자고일어나면 또 떨어지고 있다.

농민들은 어찌할 줄 모르고 있고 농협과 상인들은 쌀값이 더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등 쌀 대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국가적인 중대사안인 쌀의 문제가 이렇게 엄중함에도 정부와 여당은 오로지 지난해 진행된 쌀 협상에 대해 국회동의를 얻으려고 혈안이 되어있다.

껍데기뿐인 보완책(공공비축재와 쌀소득보전 직불제등)의 허구성은 숨긴 채 '농민단체가 요구한 사항을 대부분 수용했다' 라고 하면서 쌀 협상안 국회비준을 강행처리 하려는 등 천인공노할 작태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고 설 자리도 없기에 비장한 각오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첫째, 우리는 나라 1천만석 적재투쟁을 전체 농민과 함께 진행하여 국회비준 저지, 수매제 부활 쟁취해 낸다.

1차 적재(10월 17일), 2차 적재(총력적재의 날, 10월 28일)등 주요시기 적재의 날을 정해 모든 농민들이 면사무소 앞에, 시군청 앞에 대대적인 적재를 진행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당면한 쌀 협상안 국회비준을 저지하고 수매제 부활(생산비 보장, 전량수매)을 쟁취해 낼 것이다.

둘째, 11월 부산 APEC회의 저지, 부시방한 저지투쟁을 전개한다.

11월에 진행되는 부산 APEC회의는 비공식 각료회의를 통해 12월 WTO각료회의의 타결을 위한 결의문을 준비하는 등 12월 WTO각료회의의 전초전 성격을 띠는 회의이다.

우리는 오는 11월 18일 부산에서 10만이 참여하는 농민대회를 통해 APEC회의를 저지시켜 낼 것이다.

셋째, 12월 WTO 홍콩각료회의의 저지투쟁을 홍콩현지에서 전개한다.

지난해 진행된 쌀협상이 철저히 미국의 이익을 위해 진행한 협상이었음이 지난번 국정조사 결과 만 천하에 밝혀졌다. 이렇듯 지금 쌀개방과 한국농업의 몰락의 위기는 바로 WTO와 이를 앞세우는 미국에 있음은 모두

가 아는 사실이다.

2004년 멕시코 칸쿤에서는 이경해 열사의 투쟁등으로 회의를 결렬되었다.

이번에는 광주전남에서 600여명, 전국적으로 1500여명의 농민이 홍콩현지로 달려가 각료회의를 저지하고 WTO를 박살내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넷째, 통일쌀 보내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한국농업이 살길은 「통일농업」밖에 없다. 민족내부간 교류, 쌀 400만석 대북 지원을 통해 통일농업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 이번 나락 1천만석 적재투쟁과 병행하여 가구당 2되 이상(마을당 40kg 2포대)의 쌀을 모아 북에 보내는 운동을 전개 할 것이다.

위와같이 필사투쟁의 각오로 우리의 결의를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생산비를 보장하는 수매제를 부활하라.

수매제는 한국농업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인 농업정책이었다. 수매제 폐지는 곧 국가가 식량 수급을 포기하는 것이요, 농업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며 WTO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 되고 만다. 수매제 포기로 인한 쌀대란이 시작되고 한국농업 몰락이 가속화 되고 있다. 생산비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전량을 수매하는 '수매제 부활'은 되어야 한다.

하나, 국회는 실패한 쌀협상과 국회비준 거부하라.

지난해 진행된 쌀협상은 시작부터 끝까지 미국의 국익에 충실한 협상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이를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는 쌀협상 국회 준비를 거부해야 한다.

하나, 현재 진행중인 공공비축 산물벼 매입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의 공공비축제 계획을 보면 RPC를 통한 산물벼 150만석, 포대 250만석이다. RPC를 통한 산물매입은 RPC가 자체로 판단한 시장가격인 산지 쌀값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가격의 기준이 없어 RPC는 쌀값이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지금의 쌀값 폭락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농민들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국가가 쌀을 포기하면서 6만원 하던 나락값이 4만원으로 폭락하고 하룻밤 자고일어나면 또 떨어지는 것을 마냥 바라보고 있을수 만은 없다.

우리는 위와 같이 우리의 결의를 동학농민의 후예로서, '쌀을 지키는 것은 식량주권을 지키는 것이요 이는 곧 국가의 자주권을 되찾는 길' 이기에 우리의 투쟁이 제2의 동학농민전쟁, 제2의 독립운동임을 4천7백만 국민들앞에 선포한다.

나락을 군정앞에 적재하고 쌀협상 국회비준을 지지하지! 2005년 10월 6일
광주전남 농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어군농민회

전농광주전남연맹, 한농연전남도연합회, 전여농전남연합, 한여농전남도연합회, 한국가톨릭농민회광주대교구연합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전남연합회